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8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10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목차

포커스: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REBT(인지·정서·행동치료)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신재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계 뉴스
1. 2013년부터 모든 법인 웹 접근성 의무화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NH농협은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뱅킹 실시
4.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후변화 안내서 「손끝으로 보는 기후 변화」
5. 201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최종우승하며 폐막
사람이야기: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의사, 국립암센터 박종혁 과장
독자마당: 소설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 / 서우정(충남 논산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0월 1일~10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6): '와이파이'와 '내비게이션'을 다듬은 말은?
~~~~~~~~~~~~~

포커스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REBT(인지·정서·행동치료)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신재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필자는 2005년 석사학위논문으로 '중도시각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중도시각장애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이 장애의 적응단계와 재활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초재활교육과정 중에 있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운영을 하면서 그들이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진로발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필자가 시각장애인관련 기관에 종사하면서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재활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초재활 및 직업재활과 함께 심리적 재활과정이 병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중도시각장애인이 장애를 입게 되면 매우 큰 상실과 제한을 경험하며,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와 진로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생애 중간에 갑작스러운 장애에 직면하면서 절망감과 상실감에 휩싸여 주변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갈등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음주와 흡연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제한으로 문화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사고를 지니기 쉽고 재취업, 경제활동 등에서 심각한 진로문제를 겪고는 한다.

필자는 박사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중도에 시각을 잃어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과 진로문제를 안고 있는 재활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인지·정서·행동치료(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이론을 토대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높여 합리적 진로발달을 이루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다.

필자가 개발한 REBT(인지·정서·행동치료) 진로집단상담은 전국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기초재활교육과정 및 직업재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자가 내담자(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진로문제에 대한 비합리적인(잘못된) 신념을 발견하고 이를 합리적인 신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장애에 잘 적응하고 재활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 맹학교에서 기초재활 및 직업재활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요구 설문조사 등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토대로 내용, 전략을 정하고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이며, 1회기는 120분 분량이다. 첫 회기는 도입단계로, 전체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 알리기, 자기소개 및 친밀감형성, 참여 동기유발 등의 내용으로 조직하였다. 2~4회기는 자아존중감 회복단계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아정체감 확인을 통한 자아통합, 장애수용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7회기는 대인관계능력 향상단계로, 자기 및 타인 이해를 통한 대인관계 향상, 가족관계 회복,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재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8~10회기는 진로태도 성숙단계로, 합리적 진로목표 설정, 진로희망 고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시각장애인복지관과 C맹학교에서 직업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들과 S복지관에서 동료상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필자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REBT(인지·정서·행동치료)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REBT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상담자 혹은 비장애인 상담자가 주로 사용하게 되겠지만 중도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활상담자들도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고 향후 재활중도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계 뉴스

1. 2013년부터 모든 법인 웹 접근성 의무화

내년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내년부터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된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내년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왔으나 그간 웹 접근성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성이 취약했던 금융, 쇼핑, 포탈, 언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내년을 시발점으로 차츰 웹 접근성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영역에서 웹 접근성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벌써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았거나 준비 중이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됨 없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웹 접근성이 잘 반영된 사이트는 화면읽기프로그램, 키보드, 대체마우스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서 접근할 시에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법'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이 갑자기 시행됨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웹 접근성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2009년에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2010년은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등이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접근성도 차츰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 웹 접근성 준수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럼 웹접근성은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0(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표준)'에서는 웹사이트 개발자, 설계자 등에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의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소장은 "웹은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정보취득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웹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다루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1급 및 2급으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 발표됐다.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신청자격을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 2급인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서비스팀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전화 2023-8204, 팩스 2023-8060)로 문의가 가능하다.

3. NH농협은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뱅킹 실시

NH농협은행이 지난 10월 20일부터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인 '해피뱅킹'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피뱅킹 서비스’란 시각 장애인 고객이 스크린리더기로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농협은행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 초기화면을 통해 접속하거나 별도 도메인(happy.nonghyup.com)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해피뱅킹서비스 사이트는 농협은행 소개사이트와 함께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공인기관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한 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마크를 뜻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해피뱅킹 서비스 외에도 차세대 e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인터넷뱅킹 페이지를 한국형웹접근성지침 2.0에 따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후변화 안내서 「손끝으로 보는 기후 변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이하 한시련)와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안내서 「손끝으로 보는 기후변화」를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했다.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 기관들은 기후변화가 산업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인쇄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이에 대한 정보습득의 기회가 적었다. 그러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상청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기후변화안내서 「손끝으로 보는 기후변화」를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다.

해당 도서는 기상청 기후과학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

으며, 기후변화의 예측과 대응방법, 지역별 기후변화 현황 등이 담겨있다. 도서의 내용은 2011년부터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기후변화 교육ㆍ홍보 강사단' 공통교재와 2011년 발간된 '한국기후변화백서', '지역기후변화정보 어떻게 활용해야하나?'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손끝으로 보는 기후변화」는 점자도서 1,000부와 오디오북(CD) 500부로 제작되어 전국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학교 등 시각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240여 곳에 무료로 배포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ARS 서비스 2092-9000, 1577-6655번과 시각장애인 사이버방송센터(www.kbumac.or.kr), SK텔레콤에서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도서관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을 계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201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최종우승하며 폐막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폐막식을 갖고 5일간의 열전의 막을 내렸다.

종합순위에서는 경기도가 총 273,308점(금146, 은157, 동130)으로 7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이 163,269점으로 2위, 인천은 153,631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기자단이 뽑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은 육상트랙 100m 200m,400m에서 3관왕을 차지해 9년 연속 3관왕에 오른 전민재 선수(전북)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신인 선수상은 육상 여자 T20(지적) 100m와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지혜 선수(경기)가 수상했다.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들도 세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좋은 성적을 냈다. 시각장애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최광근 선수(경기)는 B2 -100kg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공인 세계신기록 2개도 나왔다. 수영 조원상 선수(충북)가 수영 남자 400m 자유형(S14)에서 4분15초53을 기록했는데, 이는 에버스 마르크 선수(네덜란드)가 세운 세계기록 4분17초69를 2초16이나 앞당긴 것이다. 육상 김순정 선수(서울)도 여자 곤봉던지기(F31)에서 11.28m을 기록해 자신이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세운 세계기록 10.98m를 넘겼다.

"손을 잡고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된 폐회식은 대회 기록영상 상영과 종합시상, 대회기 전달에 이어 성화소화로 진행됐으며, 선수들은 내년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대구광역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매 경기마다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 박수에 감사하다"면서 "내년 제3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더 많은 선수단이 참가해 장애인체육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람이야기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의사, 국립암센터 박종혁 과장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시각장애 3급, 37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의사이다. 박종혁 과장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어릴 적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장애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장애를 알린 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었기에 수능시험도 의사국가고시도 모두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없이 치러냈다.

최근 그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이기에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그의 말과 글은 누구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올해는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에서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환원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진행성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시는지.

“아주 어릴 적에 발병이 됐는데 현재는 시야가 5도 이하이다. WHO기준에 의하면 전맹인데 얼굴에서 코만 보이는 정도이다. 안경을 벗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처음 장애를 알게 된 것은 언제였는가.

“아주 어릴 적부터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 말씀드리기가 두려웠다. 초등학교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는 불량배들한테 맞았다고 했다. 수능 시험 때 장애등급이 있었다면 시간을 연장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은 장문의 지문을 힘들게 읽느라 시간이 늘 부족했다. 그때 시험시간을 더 배정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것 같다(웃음).”

-의대생들은 다른 학과 학생보다 더 많은 책을 볼 텐데, 스크린리더 같은 보조공학기기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게 힘들었을 것 같다.

“무척 힘들었다. 의대에 입학해서 다른 과목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해부학이나 병리학을 공부하며 좌절을 많이 했다. 신경, 혈관 등이 구조물이다 보니 이미지를 보아야 하는데 시야가 좁다보니 교과서를 아무리 봐도 파악이 되질 않았다. 그러다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버렸다. 시야에 보이는 만큼의 그림을 쭉 보고나서 머릿속에 연결을 시켜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친구들과 밤에 함께 어울렸던 경험과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언어와 외국어영역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글을 빨리 읽기 위해 했던 노력이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지.

“눈이 안 보이니까. 원인을 알고 고치고 싶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니 고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었다. 그땐 실망이 무척 컸다. 그리고 장남이다 보니 부모님의 기대가 크셨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선택하기 잘했다’ 싶을 때는 언제인가.

“항상 그렇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최근 국민건강증진종합법 안에 장애인건강과 관련된 분과가 생겼다. 그때 가장 뿌듯했다. 장애인들이 건강하지 못 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들도 국가에게 소득보장보다 건강보장을 더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 제 전공을 살려서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 환자를 보는 임상의가 됐다면 지금의 일들을 하지 못 했을 거다. 교과서에 보면 예방학을 하는 의사가 더 큰 의사라고 나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내 일에 뿌듯함을 느낀다.”

-최근까지도 가족들에게 장애를 숨겨왔다고 들었다. 부모님이 장애사실을 아셨을 텐데 반응이 어떠셨는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할 수 없었다. 또 장애를 밝히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다. 2002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이미 취득한 면허를 박탈하겠는가 싶어 그때 학교에 장애사실을 밝혔다. 그때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처음으로 말씀드렸다. 도저히 직접 말로는 못 하겠어서 이메일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자취방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는 지난해 말씀드렸다. 이제는 직업이나 가정 모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보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 어쩌면 어릴 적에 말하지 않은 것이 새옹지마가 된 것 같다. 장애를 말씀드렸다면 장애인이니까 어떤 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모님이 정한 뜻에 따라야했을지도 모르겠다.”

-장애가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아 주변에서 오해도 받았을 것 같다.

“학교 다닐 때는 선배들에게 인사도 안하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 학교에서야 이상하다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직장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 그렇다보니 사회에 나와서는 내가 먼저 장애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겉으로 시각장애인인게 티가 안 나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오해를 한다. 내가 일일이 다니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팡이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 들고 다니면 편하긴 하겠지만 국립암센터라는 의사조직에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국립암센터야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바로 옆자리에 있어 불편함이 없지만, 밖에 다닐 때는 위험하다보니 지팡이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률, 흡연률 등은 높고 건강검진률은 오히려 낮다.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장애인은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고혈압환자도 많다. 우리 국민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3%인데 장애인들은 16%가 넘는다. 3,4배 정도가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로인해 건강수준도 더 낮다. 병원 자체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장애인보건 관련된 일은 경시되는 편이다.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복지부에는 장애인 보건과 관련된 부서가 없다. 법률로서 보장이 돼야 예산도 편성되고 담당 부서와 사무관도 생길 것이다. 11월초에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법률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애인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암예방 수칙만 지키셔도 좋다. 암 발생 원인의 30%는 흡연이고 20%는 음주다. 금연을 하고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마셔야한다. 식생활 관련 원인이 30%다. 탄 음식, 짠 음식 등은 멀리 해야 한다. 이정도만 지켜도 80%가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검진도 중요하다."

-시각장애인계와 그동안 교류가 없으셨던 것 같다.

"연구에 매진하다보니 교류를 하지 못했다. 교류할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 달라(웃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사친구들도 많으니깐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앞으로는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려고 한다."

-장애로 인해 진로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3V'가 있다. '비전(vision, 목표), 벤처(venture, 모험), 빅토리((victory, 승리)'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저도 실패한 것이 많다. 임상의가 되지 못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 다른 분야에 도전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고 성공을 경험하면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에 자신감도 생긴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가장 가까운 목표는 장애인 건강권확보를 위해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 비만률을 낮추고 건강검진 재활의학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목표이다. 그리고 크게 보자면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의 행복이다."

- 브레일 타임즈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건강증진 시스템을 잘 만들고 시각장애인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독자마당

소설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

서우정(충남 논산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살아가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다. 죽으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모두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과 우리 집에 굴러다니던 수많은 약들, 먹기 싫었지만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먹었던 약들까지 모든 약을 한 데 모았다. 이 모든 약을 한 번에 먹으면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약봉지를 하나씩 풀어 컵에 담으면서 고민했다. 나는 왜 죽으려고 하는 걸까? 죽으면 편해질까? 죽게 되면…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프지 않은 그곳에 가는 걸까? 그러면 내 기억 밑바닥에 있는 그 끔찍한 기억들마저 사라지는 걸까?

컵 안에 점점 쌓여가는 약을 보다가 결심했다. 그냥 죽어버리자고, 죽으면 편해질 거라고, 죽으면 내 기억은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컵에 약을 담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다. 결국, 그날 컵에 담긴 약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나에겐 죽을 용기 따윈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약을 버리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다. 한순간 생각을 고쳐먹고 컵에 있는 약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을 쓰면 외로움이 가시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이나마 없어질 것 같았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싶었다. 그렇게 소설을 쓴 지 10년이 지났다.

소설을 쓸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다. 나만의 인물을 만들어가면서 울고 웃고 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다. 내 꿈을 포기했을 때 느꼈던 자괴감이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은 그랬다. 소설을 쓰는 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소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갔다.

<하얀 바람의 눈물>을 쓸 때다. 그 전에 난 <흰 종이 위의 꽃>이라는 소설을 문피아에 연재했었고, 그때 알게 된 작가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그때 속했던 작가들은 무협 작가 두 명, 판타지 작가 다섯 명 그리고 나까지 모두 8명이었는데, 내 또래도 있었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들도 있었다.

그때 시작하게 된 게 <하얀 바람의 눈물>이었는데 쉽지는 않았다. 일단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가 일이었고, 1일 연재다 보니 하루 쓰고 올리고 하는 일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작은 시놉시스는 3권이었는데 쓰다 보니 5권으로 늘어 있었다.

<하얀 바람의 눈물>을 쓰면서 많은 시간을 웃고 울었다. 내가 겪었던 상황을 조금 각색하여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신선했고, 가끔 보내주는 독자들의 호응도 나쁘지 않았다. 로맨스라는 장르, 그리고 소설 내용 때문에 조회 수는 많지 않았지만, 내 글을 따라와서 봐주는 독자층이 생겨서 기뻤고, 나름 뿌듯하기도 했다.

<하얀 바람의 눈물>을 끝내고 소설 속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축빈이에게 미안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여자 친구를 눈앞에서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규원이한테도 미안했다. 제대로 된 악역을 만들지 못해 어설픈 캐릭터로 남아버린 영선이와 현상이에게도 미안했다. 그 이후 악역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으면서 <Misty Memory>를 썼던 지난해에 또 다른 악역을 만들고 말았다. 악역은 소설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렇지만 있으면 후회되는 캐릭터인 것 같다.

<Misty Memory> 2부인 <마음을 만지다>를 쓰는 지금, 소설이라는 것에 조금은 익숙해졌다. 내가 만드는 캐릭터의 성격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흰 종이 위의 꽃>, <소중한 약속>, <별>, <하얀 바람의 눈물>, <Misty Memory>, <하나뿐인 너에게>를 완성하고 <마음을 만지다>를 쓰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부류의 소설, 내가 쓰고 싶은 부류의 소설을 찾은 느낌이라 다행이다.

출판을 원하지는 않는다. 아니 원하지만,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하나뿐인 너에게>를 쓰면서 내 소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Misty Memory>와 <마음을 만지다>를 쓰면서는 가사를 만드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소설인 <하나뿐인 너에게>는 배경과 상황이 다르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만 이루어진 캐릭터들이라 조금은 힘들었다. 만약 <Misty Memory>에서 연습하지 않았더라면 완성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완성한 지금도 약간은 찝찝한 기분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만지다>를 완성한 후 리메이크를 생각 중이다. 게임소설을 쓰면서 실패한 전력이 있어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3분의 2가 지나간 <마음을 만지다>는 내 소설에서 보기 드문 해피엔딩을 결말로 잡고 있지만,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끝내야할지 잘 모르겠다.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부모님의 어설픈 관계에서 태어난 여자 주인공 류소와 자신의 잘못으로 첫사랑이자 사촌 동생이 자살을 택했다고 믿는 남자 주인공 준영. 류소는 상처가 많아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나마 믿는 준영이도 기억과 시력을 잃으므로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류소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걸 믿는 준영이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런 두 사람이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호와 미연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잊힌 기억을 찾고, 성호와 미연이까지 모든 정리를 마쳐야 비로소 두 사람의 예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남지는 않았다. 단지 악역으로 남겨야만 하는 성호와 미연이한테 미안할 뿐. 음악으로 시작한 관계인만큼 음악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 미리 가사도 완성해 놓았다. 단지 성호에게는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가, 류소에게는 최악의 하루가 될 노래라서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이제는 장애인이 등장하는 소설을 접을까 한다. <마음을 만지다>와 지금 구상 중인 한 작품을 마저 완성하고 나면 장르를 바꿔 볼 생각이다. 현대물이라 로맨스보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잘 써야겠지만 무협처럼 묵혀두지 않고 시작할 생각이다.

글을 언제까지 쓰게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게 직업이 아닌 취미 생활이 되더라도 꾸준히 쓸 생각이다. 어릴 적의 기억을 다 지우지는 못했지만,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 혼자의 노력은 아니다. 내 글을 봐주는 독자들이 있고, 날 지탱해주는 사람이 있어 상처가 아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모든 기억을 떨쳐내는 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내 글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 아픔이 없는, 행복으로만 이루어진 글을 쓰는 게 최종 목표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말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0월 1일~10월 15일]

10월 2일(화요일) YTN 등에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음주관련 진료비 6년간 1조 3000억 원'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4일(목요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국회 본회의와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내일신문, 메디컬투데이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도박중독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5일(금요일)에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시련 강원지부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같은 날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 육성사업 부실'에 관한 최동익 의원 기사가 보도되었다.

8일(월요일)에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했으며, 메디컬투데이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 실명질환 급증'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9일(화요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여러 매체에 최동익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노컷뉴스 등에는 '대형병원 현지조사 실시율' 관련 내용이,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에는 '아동복지시설 낮은 급식단가' 관련 내용이, 메디컬투데이 등에는 '의료급여 구상권 미징수금'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0일(수요일)에는 한시련 서울지부 대의원 총회를 주재했으며, 이날 SBS뉴스 등에는 '치료반응률 낮은 고가 항암제 대책'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11일(목요일)에는 차병원 등 국정감사 시찰에 참석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커피전문점 카페인 과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2일(금요일)에는 서울시 복지건강실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시찰에 참석했다.

14일(일요일)에는 동아일보 등에 '프로포폴 병·의원 관리허술' 관련 내용이, 서울신문 등에 '국민연금 미수령액' 관련 내용이,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에는 'CT 재촬영율'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15일(월요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했으며, 이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했다.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6)

1) '와이파이(Wi-Fi)'의 순화어: 근거리무선망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이 개방된 장소에서 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뜻한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무선 인터넷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망(와이파이)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거리무선망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이므로 전화선이나 전용선은 필요 없지만 사용자의 기기에는 무선 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만 한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근거리무선망 지역을 늘려가고 있어 앞으로 근거리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무선 인터넷을 둘러싼 통신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용자들의 무선 인터넷 사용이 편리해지고 통신 요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ㄱ. 근거리무선망(와이파이)은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의 무선 인터넷이다.

ㄴ. 근거리무선망을 통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근거리무선망을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

2) '내비게이션'의 순화어: 길도우미

길도우미는 내비게이션을 다듬은 말이다. 잘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도로 정체가 심할 때 우리는 도로정보를 제공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를 애용한다.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뜻하는 '내비게이션'을 간혹 '네비게이션'이라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이다.

본래 '항해'라는 뜻을 가진 내비게이션은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항해하듯이 인터넷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뜻하는 데 쓰이지만, 선박이나 비행기와 관련해서는 '자동 항법 장치, 자동 조종 장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요즘엔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외래어를 쉽고 고운 우리말 길도우미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내비게이션 관련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길도우미라는 용어를 즐겨 써 준다면 국민들에게도 이 말이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ㄱ. 처음 가는 길이라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켜고 운전을 했다.

ㄴ. 길도우미 음성 안내 중에는 운전자의 졸음을 쫓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도 많은데, 남성의 목소리, 게다가 사투리로 안내하는 것도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